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관광부국(觀光富國)’ 실현을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

· 한국과 독일의 관광경쟁력지수(TTCI) 비교를 중심으로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관광부국(觀光富國)’실현을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

- 한국과 독일의 관광경쟁력지수(TTCI) 비교를 중심으로

Executive Summary	i
1. 분석 배경	1
2. 한국의 관광경쟁력 현황	3
3. 한국과 독일의 관광경쟁력 비교	6
4. 시사점	13
<부록> 부문별 세부 경쟁력 비교	15
■ HRI 경제 지표	20

■ 분석 배경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국격 향상을 위한 5대 과제 속에 문화관광산업 발전 정책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관광산업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9년 11월에는 정부가 관광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이 목표로 하는 '관광부국(觀光富國)'은 관광경쟁력 15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그리고 관광수입 300억 달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관광경쟁력 세계 3위인 독일이 2007년에 이룩한 관광객 2,400만 명에 관광수입 36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독일은 전통적 제조업 강국이면서 주변국에 비해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독일과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한국과 독일의 관광경쟁력 비교

2007년부터 World Economic Forum에 의해 매년 발표되고 있는 여행과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TCI)에 따르면 2009년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31위로 독일의 3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광지원제도 경쟁력) 첫째, 한국은 독일과 비교하여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치안, 안전, 위생, 환경 등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독일은 환경정책의 규제기준과 집행측면에서 한국보다 엄격하여 독일의 오염물질 집중도는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자원 경쟁력) 둘째, 한국은 관광자원에 대한 평가에서도 독일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독일에 앞서고 있으나, 문화, 자연 등의 관광자원 경쟁력은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기준 등재된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수는 10개로 독일의 32개와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2007년 기준 보호지역 면적이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8%로 독일의 54.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광인프라 경쟁력) 셋째, 한국은 독일에 비해 교통·숙박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인구 백 명당 호텔 객실 수에서 독일이 1.1개이지만 한국은 이의 10분의 1에 불과한 0.1개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육상, 해상, 항공 인프라의 경우에도 양·질적인 면 모두에서 한국이 독일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시사점

첫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요구된다. 환경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부족한 자연자원 여건을 감안하여 인공 관광자원 확충에도 주력해야 한다. 더불어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과 같은 친환경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교통 및 숙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동북아 관광 허브 전략으로 인접국가에 대한 관광 수요를 국내로 유인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양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거쳐 갈 수 있게 하는 연계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알려야 한다.

1. 분석 배경

- 관광산업이 한국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경제나 산업의 경쟁력, 문화,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변화 없이 국격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이를 위해 관광산업 육성을 포함한 5대 과제를 선정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첨단 기술 제품 발굴 및 홍보 강화, 문화 관광 산업 육성,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의 5가지로 구성
- 2009년 한국관광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
 - 대부분 국가들의 관광산업은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를 맞음
 - 8월 기준으로 일본, 중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외래 관광객은 전년과 비교하여 각각 25.3%, 14.2%, 9.0%가 감소
 - 반면 2009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증가
 - 1~10월까지 외래방문객 누계는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한 651만 3천 명

< 내국인 출국과 외래객 입국자 추이 >

(단위: 만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e)
내국인 출국	550	608	712	709	883	1,008	1,161	1,333	1,200	950
외래객 입국	532	515	535	475	582	602	616	645	689	79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3배 늘리기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년 11월 20일.

- 또한 동북아지역 관광허브로서의 자리매김 시작
 - 홍콩, 중국, 대만, 일본으로부터 각각 75.3%, 32.7%, 31.1%, 16.7% 증가

○ 2010년,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

- 2009년 11월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

- 관광을 확실한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
- 관광수요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내수 진작→인프라 등 관련투자 확대 →외래 관광객 방문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
-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을 육성하고 남아있는 규제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서비스 개선, 특별 마케팅 등 민관합동의 범정부적인 준비노력 구체화

< '관광 산업 선진화 전략'의 내용 >

추진전략	주요과제
관광의 일상화	1. 휴가 및 공휴일제도 개선 2. 가족관광 교육 시스템 3. 소외계층 복지관광 4. 숙박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시장친화	1. 특별용자 등 단기대책 2.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3. MICE, 쇼핑 등 고부가 산업 육성 4. 비자개선 및 한중일 협력 강화
한국형 콘텐츠 강화	1. 명품 콘텐츠 발굴육성 2. 관광재생 프로젝트 3. 테마 형 관광국토 디자인 구축 4. 창조관광 실현
[특별사업]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	1. 국민환대 서비스 개선 2. 인전한국 캠페인 3. 7대 특별이벤트 추진 4. 해외홍보 마케팅 및 인센티브

자료: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11월.

-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의 비전은 대한민국을 '觀光富國'으로 만드는 것

- 외래 관광객 수를 2008년 689만 명 수준에서 2020년 그 세 배인 2,000만 명, 관광수입은 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그리고 관광경쟁력은 133개 국가들 중 31위에서 15위로 높임
-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2008년 127만개에서 2020년 250만개로 증가

2. 한국의 관광경쟁력 현황

- 2007년부터 여러 국가들의 ‘여행과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 (Travel&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TTCI)’를 World Economic Forum이 연간으로 발표
- TTCI는 여러 나라들에서 여행과 관광산업부문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와 정책을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짐
- TTCI는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컨설팅회사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생
 - 디자인은 Booz & Company, 데이터는 Deloitte와 IATA등의 국제기구가 제공
 - Abercrombie & Kent, Airbus 등의 세계적인 관련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구함
- TTCI는 크게 제도, 경영환경과 인프라 그리고 자원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은 다시 4~5개 부분으로 구성

< TTCI의 부분별 구성 >

구분	구성
제도 (T&T regulatory framework)	규칙과 규정 (Policy rules and regulations)
	지속가능한 환경 (Environment sustainability)
	치안과 안전 (Safety and security)
	의료와 위생 (Health and hygiene)
	정책 우선순위 (Prioritization of T&T)
경영환경과 인프라 (T&T business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항공교통과 인프라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육상교통과 인프라 (Ground transport infrastructure)
	관광 인프라 (Tourism infrastructure)
	정보통신 인프라 (ICT infrastructure)
	가격 경쟁력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T&T industry)
자원 (T&T human,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여행과 관광에 대한 친화도 (Affinity for T&T)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문화자원 (Cultural resources)

자료: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World Economic Forum, 2009.

○ 2009년 한국 여행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조사된 133개국 가운데 세계 31위

< 2009년 TTCI와 2007년 관광수입 >

	2009년		2008년 순위	2007년 순위	2007년	
	순위	점수			외래 관광객 수 (천 명)	관광수입 (백만 달러)
스위스	1	5.68	1	1	8,448	12,182
오스트리아	2	5.46	2	2	20,766	18,887
독일	3	5.41	3	3	24,425	36,029
프랑스	4	5.34	10	12	81,900	54,228
캐나다	5	5.32	9	7	17,931	15,486
스페인	6	5.29	5	15	59,193	57,795
스웨덴	7	5.28	8	17	5,224	12,002
미국	8	5.28	7	5	59,986	96,712
호주	9	5.24	4	13	5,064	22,298
싱가포르	10	5.24	16	8	7,957	8,664
영국	11	5.22	6	10	30,871	37,669
홍콩	12	5.18	14	6	17,154	13,766
네덜란드	13	5.09	18	19	11,008	13,305
덴마크	14	5.08	13	11	4,716	6,220
핀란드	15	5.07	12	16	3,519	2,838
아이슬란드	16	5.07	11	4	1,054	633
포르투갈	17	5.01	15	22	12,321	10,132
아일랜드	18	4.99	21	27	8,332	6,066
노르웨이	19	4.97	17	23	4,290	4,377
뉴질랜드	20	4.94	19	14	2,466	5,400
사이프러스	21	4.92	24	20	2,416	2,685
벨기에	22	4.92	27	21	7,045	10,880
룩셈부르크	23	4.92	20	9	917	4,001
그리스	24	4.91	22	24	17,518	15,513
일본	25	4.91	23	25	8,347	9,334
체코공화국	26	4.86	30	35	6,680	6,618
에스토니아	27	4.83	26	28	1,900	1,035
이탈리아	28	4.78	28	33	43,654	42,651
몰타	29	4.77	25	26	1,244	919
바베이도스	30	4.77	29	29	575	967
대한민국	31	4.72	31	42	6,448	5,797

자료: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World Economic Forum, 2009.

- ‘2009 세계 여행과 관광산업 경쟁력 보고서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에 따르면 한국은 31위를 차지
 - 1위는 5.68점으로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
 - 한국은 4.72점을 기록하여 2008년과 같은 31위를 차지, 2007년의 42위에서 11계단 상승

○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국한하였을 경우 한국은 6위를 차지

- 한국은 지역 내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6위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 한국은 일본에 이어 6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 중국은 각각 9위와 10위에 오름

< 2009년 아시아 태평양지역 20개 국가들의 TTCI 비교 >

	지역순위	세계	
		점수	순위
호주	1	5.24	9
싱가포르	2	5.24	10
홍콩	3	5.18	12
뉴질랜드	4	4.94	20
일본	5	4.91	25
대한민국	6	4.72	31
말레이시아	7	4.71	32
태국	8	4.45	39
대만	9	4.40	43
중국	10	4.33	47
인도	11	4.09	62
브루나이	12	3.99	69
아제르바이잔	13	3.84	76
스리랑카	14	3.82	78
인도네시아	15	3.79	81
필리핀	16	3.73	86
베트남	17	3.70	89
카자흐스탄	18	3.65	92
몽고	19	3.46	105
키르기스스탄	20	3.45	106

자료: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World Economic Forum, 2009.

3. 한국과 독일의 관광경쟁력 비교

○ 독일은 한국이 '觀光富國(관광부국)'으로 가는데 있어 벤치마킹 대상

- 독일은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한국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관광부국과 가까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독일은 한국처럼 최근 10대 관광객 유치 도시 속에 포함된 도시가 없었음에도 2007년 TTCI가 발표된 이래 변함없이 세계 3위를 유지

< 세계 10대 관광객 유치 도시 >

단위: 백만 명

도시	국가	방문객 수	기준년도
파리	프랑스	15.6	2007
런던	영국	14.8	2008
방콕	태국	10.84	2007
싱가포르	싱가포르	10.1	2008
뉴욕	미국	9.5	2008
홍콩	중국	7.94	2008
이스탄불	터키	7.05	2008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6.9	2007
상하이	중국	6.66	2007
로마	이탈리아	6.12	2007

자료: "Tourism," (<http://en.wikipedia.org>) (2010년 1월 22일 오후 3시 50분).

- 독일은 한국처럼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아직 높은 것으로 집계
- 2020년 외국 관광객 2,000만 명과 관광수입 300억 달러의 외형적 목표는 2007년 독일이 기록한 외국 관광객 2,400만 명과 관광수입 360억 달러에 근접

< 2007년, 독일, 한국 그리고 OECD국가 전체의 GDP 구성 비교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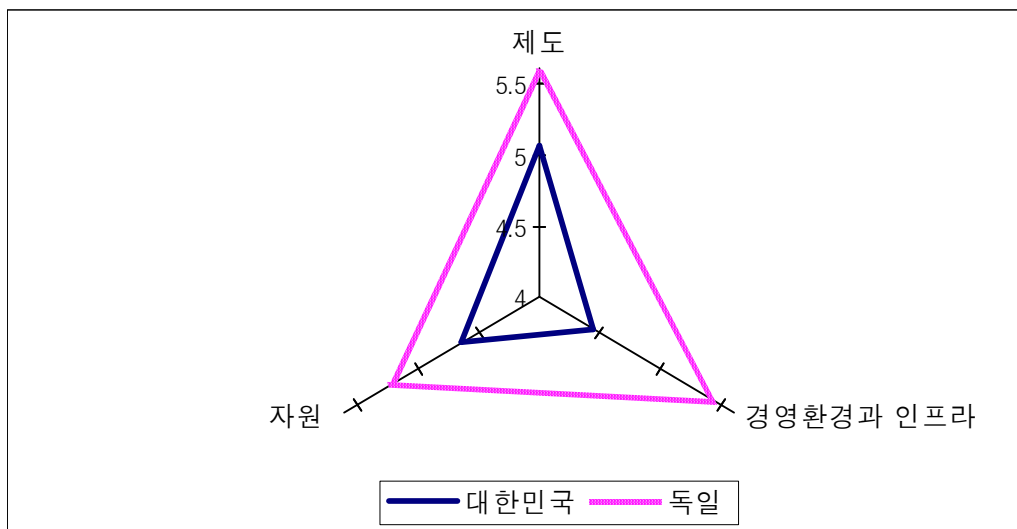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독일	1	30	69
대한민국	3	37	60
OECD	2	26	73

자료: World Bank.

○ 독일은 경영환경과 인프라측면에서 한국과 가장 큰 격차를 벌림

- 독일과의 상대적인 격차는 경영환경과 인프라, 자원 그리고 제도의 순서
 - 독일은 경영환경과 인프라에서 0.99, 자원에서 0.58 그리고 제도에서 0.5 앞섰고 전체적으로는 0.69의 차이를 보임

< 2009년 한국과 독일의 부문별 여행과 관광산업 경쟁력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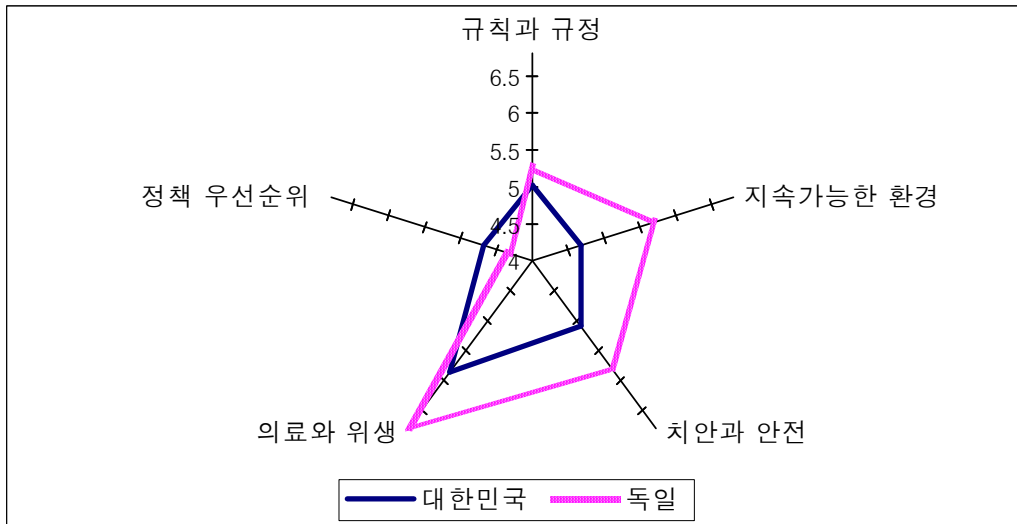
	대한민국		독일		점수 차이 (독일-한국)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제도	41	5.06	13	5.56	0.5
자원	26	4.64	9	5.22	0.58
경영환경과 인프라	35	4.45	3	5.44	0.99
전체	31	4.72	3	5.41	0.69

자료: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World Economic Forum, 2009.

○ 제도에서 독일은 한국과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였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추월

- 한국은 지속가능한 환경, 의료와 위생, 치안과 안전 그리고 규칙과 규정의 순으로 독일을 추격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독일을 추월

< 2009년 독일과 한국, 여행과 관광관련 제도의 경쟁력 비교 >



	대한민국		독일		점수 차이 (독일-한국)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규칙과 규정	34	5.03	17	5.26	0.23
치안과 안전	71	5.10	39	5.77	0.67
의료와 위생	37	5.84	7	6.79	0.95
지속가능한 환경	55	4.67	6	5.68	1.01
정책 우선순위	52	4.67	65	4.33	-0.34

자료: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World Economic Forum, 2009.

- **규칙과 규정에서 비자면제 협정국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독일에 조금씩 뒤짐**
 -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숫자는 2008년 현재 한국이 104개 반면 독일이 59개 국가로 한국이 크게 앞섬
 - 외국인 소유권 허용정도, 사유재산권 보장, 정책이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정도, 쌍무항공협정 체결 지수, 정부정책의 투명성,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비용에서 독일이 조금씩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

- **치안과 안전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독일에 뒤지는 것으로 파악**
 - 전체적으로 경찰력에 대한 신뢰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과 독일이 가장 큰 격차
 - 테러나 범죄와 폭력사태가 증가시키는 경영비용과 교통사고 건수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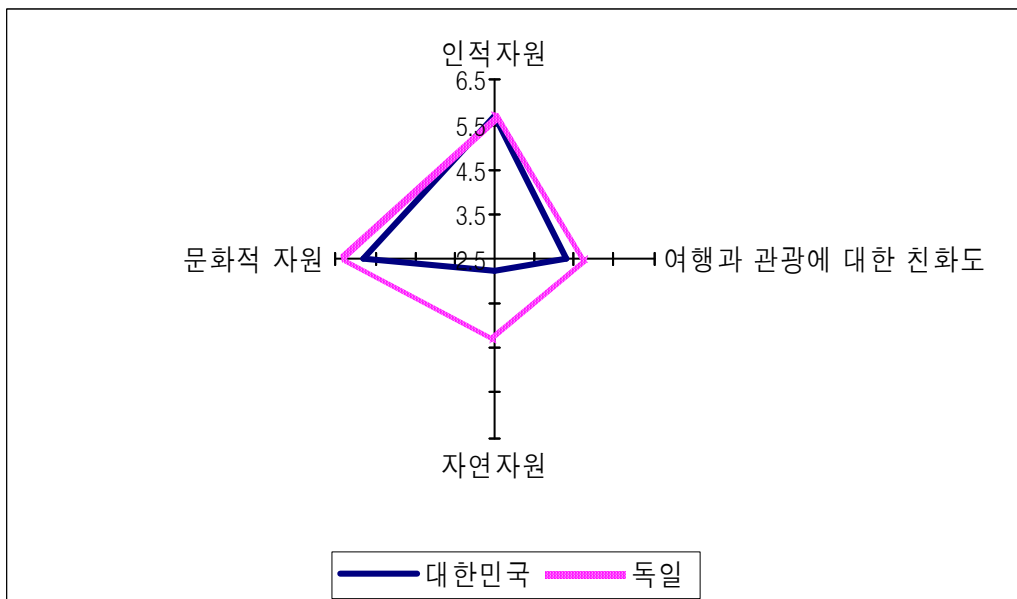
- 의료와 위생에서 한국과 독일은 의사 수에서 차이
 - 2006년 인구 천 명당 의사숫자에서 한국은 1.6명인데 반해 독일은 3.4명
 - 인구 만 명당 병상숫자에서는 한국이 86.0개, 독일은 83.0개
 - 국민들의 위생에 대한 접근비율은 100%로 같았고 다만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92%로 독일의 100%에 비해 조금 뒤쳐짐

- 지속가능한 환경을 비교하였을 때 독일과 한국은 분명한 격차
 - 환경보호 관련 정책과 적용의 엄격함에 있어서 독일은 한국보다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
 - 온실가스배출에 있어서는 독일이 근소하게 높았지만 특정오염물질의 집중 정도에서 한국이 독일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

○ 자원 측면에서는 자연자원에서만 한국이 독일에 뚜렷하게 뒤짐

- 인적자원에서는 독일보다 앞섰고 여행과 관광에 대한 친화도와 문화적 자원에 있어서는 독일에 근접해 있지만 자연자원에서는 크게 뒤짐

< 2009년 독일과 한국, 인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자원의 경쟁력 비교 >



	대한민국		독일		점수 차이 (독일-한국)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여행과 관광에 대한 친화도	114	4.32	68	4.73	0.41
문화적 자원	13	5.79	4	6.23	0.44
자연자원	91	2.78	29	4.29	1.51
인적자원	19	5.68	21	5.65	-0.03

자료: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World Economic Forum, 2009.

- 한국은 그동안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인적자본(Human Resource)개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도를 향상시킨 덕분에 인적자원에서 독일에 0.03 앞섬
 - 여행과 관광에 대한 친화도와 문화적 자원에서 독일이 각각 0.41과 0.44정도 한국을 추월하였지만 자연자원에서 독일과 한국의 격차는 1.51로 크게 벌어짐
- 여행과 관광에 대한 친화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GDP에서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독일은 3.6%였지만 한국은 2.8%를 기록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다른 방문객에게 관광을 권유하고 싶은 정도 등에서 한국이 근소하게 뒤짐
- 문화적 자원에 있어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수, 창조적 산업의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국제전시회와 축제에서 독일이 앞섰지만 경기장 수용규모에서는 한국이 추월
- 2008년 8월 기준으로 독일은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을 32개 그러나 한국은 10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
 - 창조적 산업의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한국이 1.1% 반면 독일은 8.2% 그리고 2005~2007년을 평균하여 전국단위로 개최되었던 국제전시회와 축제는 독일이 395.7회 그러나 한국은 128.3회
 - 그러나 2008년 인구 백만 명당 경기장 수용규모에서는 한국이 71,000여 명으로 68,000여 명을 기록한 독일을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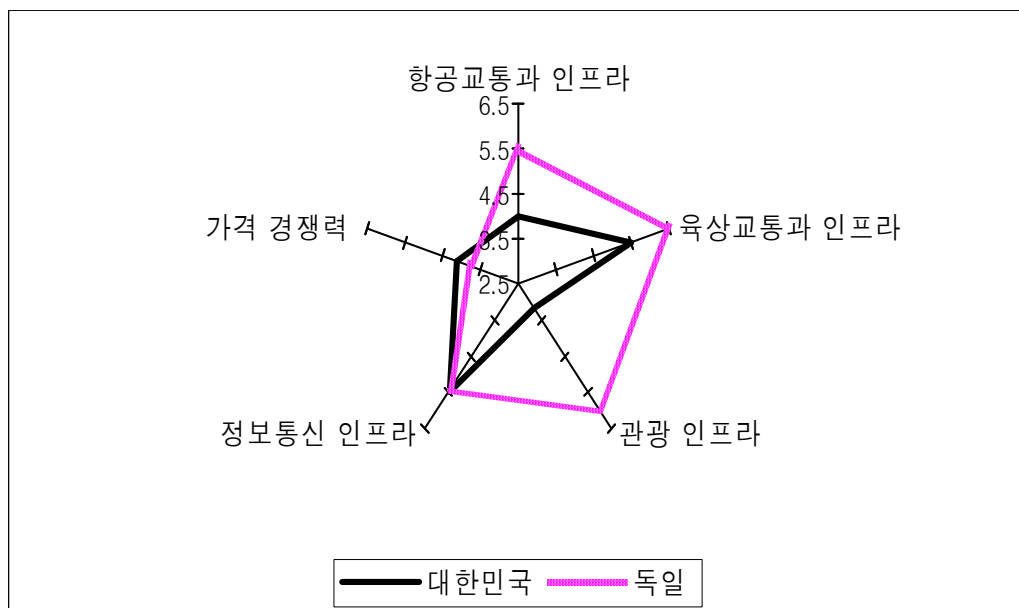
- 자연자원에서 독일은 전체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보호지역의 비중에서 한국을 압도함

- 2007년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보호지역의 비중이 한국은 3.8%지만 독일은 54.4%로 무려 14배 이상
- 자연환경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도 독일이 5.6으로 4.7의 한국을 앞섬

○ 여행과 관광관련 환경과 인프라에서 관광인프라가 가장 큰 격차를 보임

- 경영환경과 인프라에서 한국은 일부에서 크게 뒤지지만 일부에서는 앞섬

< 2009년 독일과 한국, 여행과 관광관련 경영환경과 인프라의 경쟁력 비교 >



	대한민국		독일		점수 차이 (독일-한국)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육상교통과 인프라	15	5.49	5	6.50	1.01
항공교통과 인프라	39	3.98	7	5.48	1.5
관광 인프라	71	3.17	17	5.99	2.82
정보통신 인프라	8	5.47	11	5.43	-0.04
가격 경쟁력	102	4.14	119	3.79	-0.35

자료: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World Economic Forum, 2009.

- 관광인프라, 항공교통과 인프라 그리고 육상교통과 인프라에서 독일이 우위
- 그러나 정보통신 인프라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은 각각 0.04와 0.35만큼 앞섬

- 국토면적에 대비한 도로 길이 곧, 도로밀도에서 독일이 앞섰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이 뒤짐
 - 도로밀도에서 독일은 1.80km/km²(2006년)이지만 한국은 1.29km/km²(2008년) 기록
 - 도로 인프라, 철도 인프라, 해운 인프라 그리고 육상교통망을 질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독일은 각각 6.5, 6.4, 6.4 그리고 6.6이 부여되었던 반면 한국은 각각 5.8, 5.8, 5.2 그리고 5.8

- 항공교통과 인프라에서 한국은 시설적인 면보다 활용도면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인구 백만 명당 공항 숫자에 있어 독일이 0.5 그러나 한국은 0.3기록하여 독일이 조금 앞섰지만 2008년 1~7월의 기간 동안 평균하였을 때 운항 중인 항공노선 수에서 독일이 166.5로 한국의 50을 크게 추월
 - 2008년 1~7월의 기간 동안 평균하였을 때 주당 이용한 항공노선 좌석 수에 이 동거리를 곱한 수치를 보면 국내선에서 독일이 3억 그러나 한국이 1억 4천만, 국제선에서 독일이 41억 그러나 한국이 15억으로 큰 차이
 - 또한 항공인프라의 질과 국제항공노선네트워크의 질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 독일은 각각 세계 3위와 1위를 기록함

- 관광 인프라에서는 독일과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특히 호텔 객실 수에서 그러함
 - 2008년 7개의 주요 렌트카 회사들이 독일시장에는 모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4개만 영업
 - 2007년 인구 백 명당 비자카드를 받는 ATM숫자에 한국 429.1개로 독일의 598.8개에 근소하게 뒤짐
 - 그러나 2007년 기준으로 인구 백 명당 호텔 객실 수에서 독일이 1.1개이지만 한국은 이의 10분의 1에 불과한 0.1개

4. 시사점

첫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체제의 이용 효율성 증진이 요구됨

- 제도, 자원 그리고 환경과 인프라에 있어서 독일의 한국보다 앞선 경쟁력은 상당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제도적 측면에서 경찰력에 대한 신뢰, 자원 부문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프라에서 도로, 철도, 해운 인프라의 질 등에서 한국이 독일에 뒤지는 것은 시설의 미비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제도, 자원 그리고 환경과 인프라에서 비합리적인 부분과 비효율의 제거는 관광경쟁력 강화로 연결
 -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의 모습을 정립하고,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를 고급화하며, 도로, 철도, 해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관광경쟁력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

둘째, 부족한 자연자원 여건을 감안하여 인공 관광자원 확충에도 주력하면서 친환경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그동안 한국경제전체의 경쟁력 증진에 관광경쟁력이 힘입은 바 큼
 - 제도에서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정책변화, 자원에서 인적자원 그리고 인프라와 환경에서 도로, 철도, 항공 교통망의 확장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 각 부문의 발전과 더불어 관광경쟁력이 강화
- 지금부터는 여행이나 관광산업이 부족해하는 인공적인 인프라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서독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나는 호텔과 같이 여행과 관광관련 기업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족한 인공적인 인프라부분을 채워주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

- 환경관련 법규와 이의 적용을 강화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지역을 늘림으로써 부족한 점을 보완
 - 환경보호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전개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목표와도 부합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

셋째, 외국인의 국내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 교통과 숙박 인프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아직 독일에 비해 뒤짐
 - 한국의 객실 수는 독일의 10분의 1정도로 추정 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의 질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기존 교통망과 국내 주요 관광자원의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추가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

넷째, 동북아 관광허브 전략으로 인접국가에 대한 관광 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서독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연결하는 관광의 허브로서 기능을 해움
 - 서독은 지리적으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인접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들 나라들을 연결하는 각종 교통망의 중심지로 역할
 -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객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이 동반 발달
-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관광의 징검다리화(化)'에 유리함
 - 일본에서 중국으로 혹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꼭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법과 관광 상품 개발만으로도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02-3669-4181)

< 부록 > 부문별 세부 경쟁력 비교

○ 여행과 관광관련 제도

< 규칙과 규정 부문 비교 >

	대한민국	독일
외국인 소유권의 허용 정도*	5.4	5.7
사유재산권 보장*	5.4	6.5
정책의 해외직접투자 촉진 정도*	5.4	5.5
비자면제 협정 국가 (국) (2008)	104	59
쌍무항공협정 체결지수 (2005)	11.7	16.4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	4.5	5.0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 (일) (2008)	17.0	18.0
1인당 GNI 대비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 (%) (2008)	16.9	5.6

주: *: 1=불허, 불확실, 억제 또는 불투명, 7=허용, 확실, 촉진 또는 투명.

< 치안과 안전 부문 비교 >

	대한민국	독일
테러가 증가시키는 경영비용*	5.7	5.8
경찰력에 대한 신뢰**	5.4	6.5
범죄와 폭력사태가 증가시키는 경영비용*	5.5	6.0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건) (2002)	10.6	7.1

주: *: 1=크게 증가, 7=크게 증가시키지 않음.

** : 1=낮은, 7=높음.

< 2006년, 의료와 위생 부문 비교 >

	대한민국	독일
인구 천 명당 의사숫자 (명)	1.6	3.4
전체인구에서 위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비율 (%)	100.0	100.0
전체인구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비율 (%)	92.0	100.0
인구 만 명당 병상숫자 (개)	86.0	83.0

< 지속가능한 환경 부문 비교 >

	대한민국	독일
환경보호 관련 규칙의 엄격한 정도*	4.9	6.0
환경보호 관련 규칙의 적용 정도*	4.9	6.2
여행과 관광산업 관련 개발의 환경지속가능성*	4.8	4.9
인구 1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 (톤) (2004)	9.7	9.8
특정 오염물질의 집중 정도 (마이크로그램/1m³) (2005)	36.9	19.1
전체에서 차지하는 멸종위기 보호종의 비중 (%) (2008)	8.9	2.8
환경관련 국제협약 비준 건수 (건) (2008)	20	22

주: *: 1=엄격하지 않음이나 지속가능성 경시, 7=엄격함이나 지속가능성 중시.

< 정책 우선순위 >

	대한민국	독일
정부가 보는 여행과 관광관련 산업의 중요성*	5.1	4.8
여행과 관광관련 부문에 대한 전체 예산대비 정부지출 (%) (2008)	2.5	2.0
관광객 유치에 위한 마케팅과 브랜딩의 효율성*	4.9	4.8
세계 13대 여행과 관광관련 박람회 참석 (2007~2008)	9	8

주: *: 1=낮음 또는 부재나 비효율적, 7=높음 또는 효율적.

○ 자원

< 여행과 관광에 대한 친화도 비교 >

	대한민국	독일
GDP에서 차지하는 관광수입 (%) (2007)	2.8	3.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태도*	6.0	6.5
다른 방문객에 대한 관광권유의사*	5.3	5.8

주: *: 1=불친절 또는 권유하지 않음, 7=친절 또는 적극적으로 권유.

< 인적자원에 대한 비교 >

	대한민국	독일
초등학교 등록률 (%) (2006)	97.6	98.3
중등학교 등록률 (%) (2006)	97.5	100.7
교육제도의 질*	4.6	4.9
특별한 연구와 트레이닝이 가능한 정도*	5.8	5.0
HR트레이닝 접근도*	5.3	5.2
고용과 해고가 용이한 정도**	4.1	2.3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용이한 정도**	4.9	4.5
15~49세 사이의 인구 중 환자수로 본 HIV확산 정도 (%) (2007)	< 0.1	0.1
HIV/AIDS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5.4	6.2
기대수명 (2006)	79.0	80.0

주: *: 1=낮다, 7=높다; **: 1=어렵다, 7=쉽다; ***: 1=심각하다, 7=문제될 것 없다.

< 문화적 자원 비교 >

	대한민국	독일
세계 문화유산 등재 (개) (2008년 8월)	10	32
인구 백만 명당 경기장 수용규모 (명) (2008)	71,208.3	68,571.4
전국 단위 개최국제축제와 전시회 (회) (2005~2007년 평균)	128.3	395.7
창조적 산업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6)	1.1	8.2

< 자연자원 비교 >

	대한민국	독일
세계 자연유산 등재 지역 (곳) (2008년 8월)	1	1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보호지역 비중 (%) (2007)	3.8	54.4
자연환경의 질*	4.7	5.6
알려진 전체 생물 종 (종) (2008)	461	436

주: *: 1=오염, 7=청정.

○ 경영환경과 인프라

< 가격 경쟁력 비교 >

	대한민국	독일
국제 항공 운항 서비스에 대비한 접근비용(세금과 공항 세)* (2008)	86.9	87.3
공식 환율 대비 구매력(PPP)으로 평가 시 적용 전환계수의 비율 (2007)	0.8	1.2
조세에 대한 평가 (범위와 효과)**	4.2	2.9
소매 디젤유 값 (US cents/리터) (2006)	133.0	138.0
유명 호텔체인의 중급객실의 숙박비 (달러) (2007)	194.6	131.8

주: *: 0=높음, 100=낮음; **:1=근로나 투자의욕 억제, 7=근로나 투자의욕에 무 영향;

< 정보통신 인프라 비교 >

	대한민국	독일
기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	6.1	5.9
인구 백 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명) (2007)	73.8	51.5
인구 백 명당 전화회선 수 (개) (2007)	49.6	65.1
인구 백 명당 광대역 인터넷 망 가입자 수 (명) (2007)	29.4	24.0
인구 백 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명) (2007)	90.2	117.6

주: *: 1=낮음, 7=높음.

< 항공교통 인프라 비교 >

	대한민국	독일
항공인프라의 질 (이용객 기준)*	5.9	6.7
주당 국내 항공노선의 좌석 수 킬로미터 (백 만) (2008년 1~7월 평균)	148.7	305.1
주당 국제 항공노선의 좌석 수 킬로미터 (백 만) (2008년 1~7월 평균)	1,552.6	4,146.1
인구 천 명당 출항 횟수 (회) (2006)	4.6	13.2
인구 백만 명 당 공항숫자 (곳) (2007)	0.3	0.5
운영 중인 항공노선 수 (개) (2008년 1~7월 평균)	50.0	166.5
국제항공노선네트워크의 질*	5.6	6.9

주: *: 1=미 발전 또는 불만족, 7=발전 또는 만족.

< 도로교통과 인프라 비교 >

	대한민국	독일
도로의 질*	5.8	6.5
철도 인프라의 질*	5.8	6.4
해운 인프라의 질*	5.2	6.4
육상교통망의 질*	5.8	6.6
도로의 밀도 (km/km ²)**	1.29	1.80

주: *: 1=미 발전 또는 비효율적, 7=발전 또는 효율적.

** : CIA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에 의거하며 한국은 2008년 독일은 2006년 자료.

< 관광인프라 비교 >

	대한민국	독일
인구 백 명당 호텔 객실 수 (개) (2007)	0.1	1.1
영업 중인 주요 렌트 카 회사 수 (개) (2008)	4.0	7.0
인구 백만 명당 비자카드를 받는 ATM수 (개) (2007)	429.1	598.8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6	2007	2008 ^P	2009 ^P					2010 ^E		
				1/4	2/4	3/4	4/4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5.2	5.1	2.2	-4.2	-2.2	0.9	6.0	0.2	4.5	
	최종소비지출 (%)	5.1	5.1	1.6	-2.0	0.9	1.7	4.5	1.3	3.5	
	민간소비 (%)	4.7	5.1	0.9	-4.4	-0.8	0.8	5.6	0.2	3.3	
	총고정자본형성 (%)	3.4	4.2	-1.7	-8.1	-2.7	-0.8	6.4	-0.9	4.9	
	건설투자 (%)	0.5	1.4	-2.1	1.6	3.7	2.7	3.9	3.1	3.2	
	설비투자 (%)	8.2	9.3	-2.0	-23.5	-15.9	-7.4	12.9	-8.9	9.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	54	59	-58	86	131	104	106	427	18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61	147	-133	30	164	100	111	404	265.2
		수출 (억 \$)	3,255	3,715	4,220	744	904	948	1,040	3,635	4,120.4
		증감률 (%)	(14.4)	(14.1)	(13.6)	(-25.2)	(-21.1)	(-17.6)	(11.7)	(-13.9)	(12.9)
		수입 (억 \$)	3,094	3,568	4,353	714	740	848	929	3,231	3,855.2
증감률 (%)	(18.4)	(15.3)	(22.0)	(-32.7)	(-35.6)	(-31.0)	(1.4)	(-25.8)	(19.7)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2.5	4.7	3.9	2.8	2.0	2.4	2.8	3.1		
실업률 (%)	3.5	3.2	3.2	3.8	3.8	3.6	3.3	3.6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배럴)	62	68	94	44	59	68	75	62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956	929	1,103	1,415	1,289	1,241	1,168	1,276	1,11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